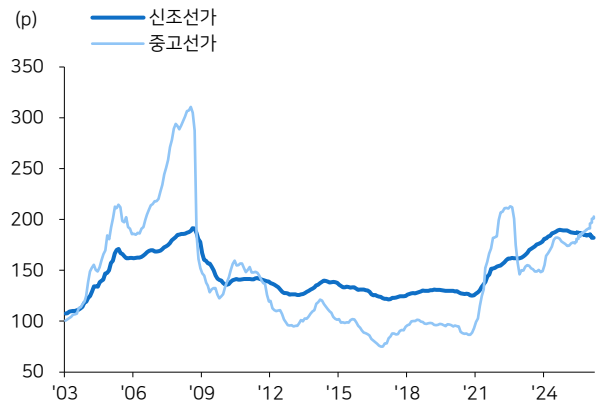
2026. 3. 23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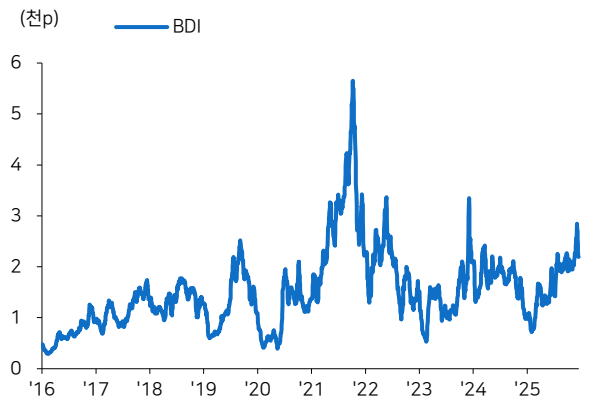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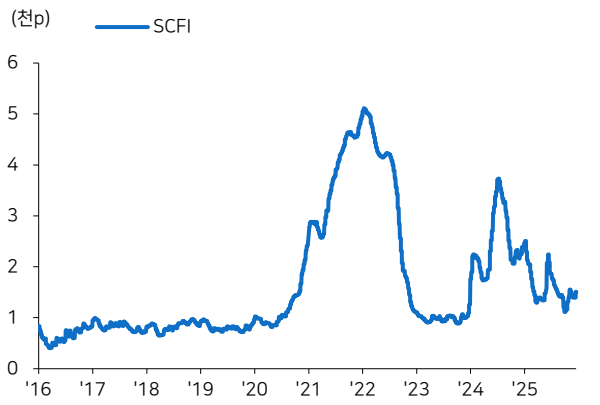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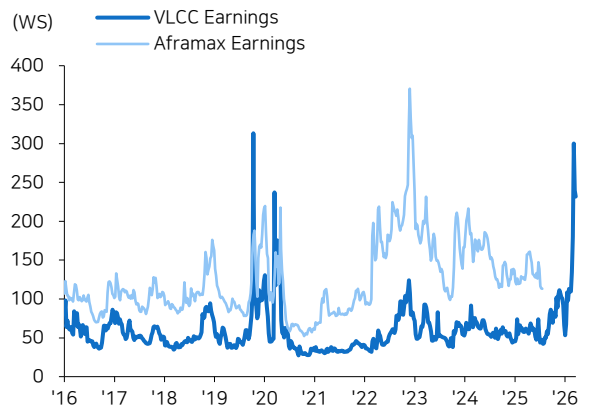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57.0p (-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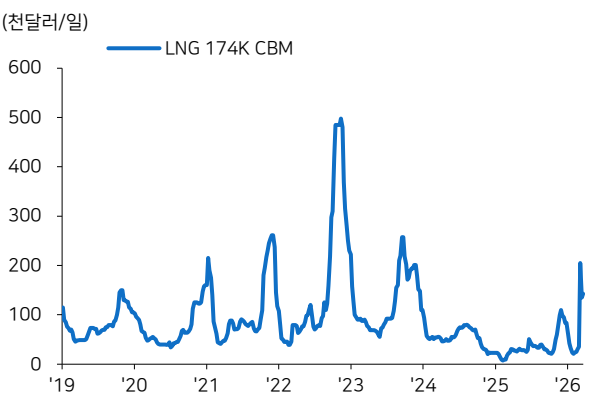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06.5p (-3.8p WoW)



VLCC Spot Rate 231.6WS (-8.1p WoW)



LNG Spot 운임 142.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오션, 그리스 조선업체 오넥스와 협력..."해경·해군 사업 적극 참여" (연합뉴스 TV) https://zrr.kr/n127zE

한화오션이 그리스 최대 조선업체인 ONEX 그룹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스 해경 및 해군이 발주할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에 독점적 파트너로서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투자한 ONEX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한국 · 미국 · 그리스 3국의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 지중해와 흑해 등 인접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현지 대형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로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곧 가시화될 그리스 정부의 함정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HD 현대 파트너 HII,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퇴역 지원 사업 수주 (더구루) https://zrr.kr/Xk7dq3

HD현대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미국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HII)이 미 해군으로부터 약 1,440억 원 규모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퇴역 및 연료 제거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HII는 미국 내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 역량을 갖춘 뉴포트뉴스 조선소를 통해 2027년까지 관련 작업을 수행하며, 이번 계약으로 미 해군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해짐. HD현대는 HII와 체결한 합의각서(MOA)를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소 운영 검토 및 주요 블록 · 자재 공급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의 수주 경쟁력 강화가 국내 조선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알려짐.

Trump sets Iran 48-hour deadline to re-open Strait of Hormuz (TradeWinds) https://zrr.kr/zcKDJu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최대 발전소를 시작으로 전력망 전체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며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도됨.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현재 해협 인근에는 약 2,000척의 선박이 고립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해짐. 미국이 미사일 능력 파괴 등 5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군 투입까지 준비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토 동맹국들에 함정 지원을 촉구하며 해협 통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짐.

Eni touts floating LNG for big Venezuela field (Upstream) https://zrr.kr/cquImG

이탈리아 에너지 대기업 Eni가 모잠비크의 세 번째 FLNG와 베네수엘라 Perla 가스전용 신규 FLNG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며 해상 가스 개발 확대를 공식화했다고 보도됨. Eni는 현재 현재 콩고와 모잠비크에서 4척의 FLNG를 운용 중이며, 향후 아르헨티나에 투입될 2척의 대형 유닛을 포함해 2030년 이후 모잠비크와 베네수엘라에 추가 설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는 최근 체결된 전략적 협정을 통해 가스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되며, 거대 저류층인 페를라 필드의 생산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짐.

Purus Marine inks LNG newbuilding option at Samsung Heavy Industries (TradeWinds) https://zrr.kr/k0J8Pm

삼성중공업이 선주사 Purus Marine으로부터 약 3,779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척을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액인 139억 달러의 17%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이번 수주는 기존 옵션 물량의 확정 발주로 해당 선박은 2029년 4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Purus Marine은 이를 통해 최소 10척의 LNG 운반선 함대를 보유하게 됐다고 전해짐. 올해 초 높은 기세로 시작되었던 LNG 운반선 신조 발주는 중동 걸프 지역의 분쟁 시작 이후 프로젝트 추진력이 약화되었다는 브로커들의 보고와 함께 이번 달 들어 주춤한 상태로 알려짐.

QatarEnergy: LNG plants could take up to five years to repair after missile strikes (Upstream) https://zrr.kr/13tkaw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이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어 복구에 최대 5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이 선언될 가능성이 보도됨. 이번 사태로 카타르 LNG 수출 역량의 17%가 차단되어 글로벌 가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인프라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전해짐. Qatar Energy는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수익 손실과 함께 콘덴세이트, LPG 등 부수 제품의 수출도 급감할 전망으로 예상하며 세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